



훈련과정 부문

02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진짜 목공의 세계로 빠져들다

합판과 원목의 차이는 뚜렷하다. 값싼 재료로 손쉽게 만들어 실용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합판가구라면, 좋은 나무를 골라서 정성으로 깎고 다듬고 이어서 만드는 원목가구는 백 년, 천 년을 간다. 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다. 시류를 쫓아 그때그때 유행한 분야를 옮겨 다니는 곳도 있지만, 한 분야의 전문인을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인재를 깎고 다듬어서 배출하는 곳도 적지 않다. 지난 10년간 오로지 가구제작 분야 직업훈련교육 외길을 걸었던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가 바로 그 '장인정신'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다. 한국 전통의 짜맞춤 가구제작 과정을 통해 예비 목공장인을 배출하고 있는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는 세월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원목가구처럼 그 명성과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02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



| 훈련분야 |

가구제작 집체훈련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263



| 홈페이지 |

dcds.kr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는 지금 전통 짜맞춤 과정에 특화된 예비 목공장인 양성소

최근 국내 가구시장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소규모 공방의 증가다. 획일화된 대량생산형 제품 일색이었던 가구시장에 개성 넘치는 고급 수제 원목가구가 등장함으로써 가구시장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형 가구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전통 짜맞춤 가구제작 훈련과정을 운영해온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 대표 이동욱가 기여한 공이 적지 않다. 일본과 핀란

드 유학시절 선진국의 하드우드 가구시장의 발전 상황을 직접 본 이동욱 교장은 200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목을 활용한 짜맞춤가구 제작에 특화된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다양성이 배제된 산업용 가구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하드우드를 이용해 가구를 제작하는 소규모 공방이 가구산업을 이끌고 있었죠.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서면 고급 원목가구의 수요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개성 있는 고급 수제 원목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직업훈련학교의 경우 합판이나 MDF





합판을 이용해 나사못으로 가구를 조립하거나 집성판에 페인트와 도장을 해서 가구를 제작하는 DIY 과정이 주를 이뤘다.

“가구는 전통문화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 교장은 처음부터 전통 짜맞춤 방식의 훈련을 고수했다.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는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좋고 견고하다. 지난



10년 사이 이 교장이 예견했던 대로 국내에 소규모 목공 공방의 수가 5배나 늘었다.

변화의 중심에서다 좋은 재료가 열정 넘치는 교사와 만났을 때

국내에 목공 전문 직업훈련기관도 드물지만, 그 중에서도 전통 짜맞춤 방식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러다 보니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절반 가까이가 대구 이외 지역 출신이다. 좋은 재료로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지원생이 모여들어 지난 2016년에는 20명 선발하는 과정에 80명이 응시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훈련생들이 만지는 원목부터가 다르다. 목재 창고에 가면 오크나 월넛, 메이플

등 미국산 고급 하드우드도 쌓여 있다. 이 정도 고급 재질의 원목을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곳은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집성목 등 값싼 재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 이 교장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싼 재료를 쓰면 역시나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좋은 재료를 제공해야 훈련생들이 정성을 들여 작품을 만듭니다. 학원을 수료하면 훈련생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과제물이기도 하지만 작품이자 교과서이기도 한 것이죠.”

전문성을 갖춘 교사진도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의 자랑거리다. 교사진 모두 가구디자인학과, 공예학과 출신 전공자로 구성됐다. 호주, 일본, 미국 등 가구제작 선진국의 직업훈련기관을 직접 둘러본 이 교장은 훈련기관의 질은 교사진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시간만 나면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교수법을 개발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교직원 능력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다 보니 교사진의 소속감과 책임감, 자긍심도 대단하다. “간쓸개 다 빼고 훈련생을 가르친다”는 이 교장의 표현대로 열정 넘치는 교사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훈련생들의 보충수업까지도 책임진다.



혁신을 만들다
설계부터 제작·관리까지,
목공 전 과정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산업가구제작 과정은 가구 설계에서부터 재단, 세공, 조각, 가공, 도장 등 제작실무 전 과정은 물론이고 제품기획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치기 위해 9개월 1,4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박 겉핥기식 수업을 지양하고 몰입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한 반 정원을 15명으로 제한했다. 이런 환경에서 훈련생들은 최고급 원목을 짜고 붙이고 잇고 칠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9개월 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은 목공예 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를 취득해서 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공방을 창업한다. 양질의 재료와 훈련과정은 시험 합격률 95%, 훈련생 만족도 4.78점 5점 만점이라는 높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분야 직업훈련만 10년을 지속해온 결과 취업률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초기에는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 직접 발로 뛰어 업체를 발굴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국의 공방과 가구제작 회사에서 훈련생들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다. 이미 취업한 선배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전담교사를 배치해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한 후 2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취업률 88%라는 높은 수치는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과정 특성상 공방 창업을 꿈꾸는 훈련생들도 많기 때문에 수료 한 달 전에는 공방 견학의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자금, 마케팅 등 사업적인 제반 요소들을 선배 창업인으로부터 생생하게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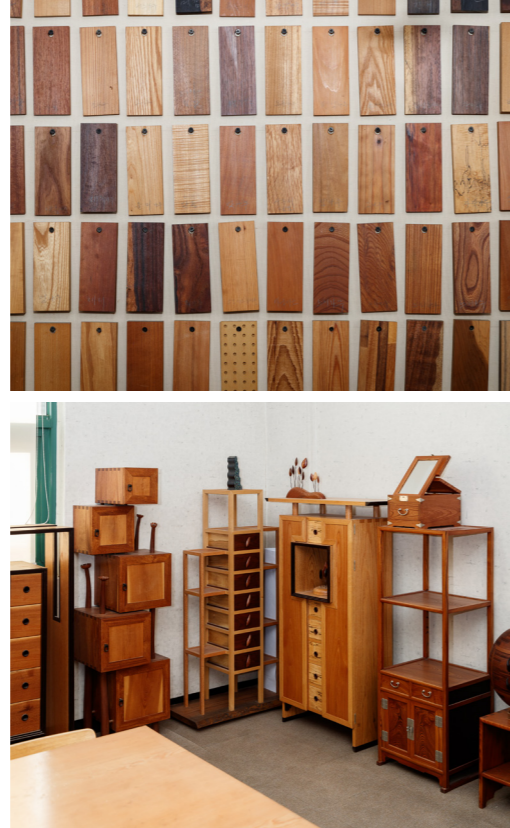
직업훈련에 미래를 담다
짜맞춤 가구제작 보급과 목공방 창업
확산에 일조

시대가 요구하는 가구제작 전문가를 양성해 온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는 내년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3D프

린터를 가구 제작에 활용하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3D프린터를 활용하면 머릿속이나 설계도에





있는 것을 미리 실물로 만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 결과물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체 교과과정을 현재의 1,400시간에서 1,60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이 교장은 교사진과 함께 함께 새로운 과정의 평가도구 개발에 한창이다. 또한, 최근

가구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근로자재직자 과정에 옷칠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대가 바뀌면 가구도 바뀝니다. 가구의 트렌드가 바뀌면 당연히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바뀌어야죠. 산업과 괴리된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구제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후진 양성에서 찾은 이동욱 교장은 “가구제작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계속해서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훈련운영 꼭꼭 포인트



트렌드를 앞서가는 훈련과정
짜맞춤 제작, 옷칠, 3D프린터 활용 과정 등 최신 트렌드 반영



최고급 원목재료 고집
양질의 훈련 결과물, 훈련생의 높은 만족도로 연결



교사역량강화 전폭 지원
교사의 소속감, 주인의식, 자긍심을 높여 훈련의 질 향상



끝까지 책임지는 취업 관리
수료 후 2년간 수료생의 취업 관리. 88%의 높은 취업을 달성

훈련생 특특 리얼 후기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 이래서 좋다!



정유리

- 2018년 2월 입교
- 산업가구제작 실무자 양성과정

어느새 과정이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워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공예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커리큘럼도 좋고 교사분들도 열의 있게 지도해주셔서 좋았어요. 몸을 쓰는 일이라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적응이 되고 나니 너무 재밌어요.

좋은 재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실습 과정에서 생기는 자투리 나무가 아까워서 쓰려고 하면 새 나무를 가져다주시면서 그냥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공방 취업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들었는데, 의외로 창업 과정도 유익했어요. 창업은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창업에 필요한 장비, 서류 등까지 배우고 나니 창업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 지역에 이런 직업훈련기관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점 만점에 4.9점 주고 싶어요.